

40주년 5·18 진상규명, UN과 공조한다

기념재단 UN본부서 포럼
"미국 협조 끌어내겠다"
고등판무관실 등 협조 약속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광주학살 진상규명에 협력한다. UN 고등판무관실 아시아태평양국 등은 5·18 진상조사에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열린 제42회 UN 인권이사회에 방문해 국제적 5·18 진상규명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1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UN인권이사회 총회와 때를 맞춰 지난달 23일 '5·18정신을 통한 정의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재단이 그동안 진행해온 5·18정신 국제화 사업을 UN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5·18 진상규명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의도로 기획했다.

포럼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2001 광주인권상' 수상자 바실 페르난도의 '아시아에서 5·18이 갖는 의미와 5·18정신과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의 상관관계', 양카나 나라빠이짓의 '5·18정신이 태국의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김기욱 한성대 교수의 '5·18과 여성', 이광수 부산외대 교수의 '5·18과 정의', 수잔 웰턴 세계시민단체연합회 대표의 'SDG #16과 5·18정신의 접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위 출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상임행사위원장은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 집행위원장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제39주년 5·18행사위원회' 11

5·18기념재단 대표단은 포럼에 이어 피터 푸르브 세계교회협의회(WCC) 인권담당국장, 로리 문고벤 UN 고등판무관실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5·18 진상규명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로리 문고벤 국장은 "5·18진상규명 작업이 UN특별조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5·18진상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영향력 있는 미국 측 파트너가 한국에서의 진상조사에 발을 맞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5·18재단은 또 파비앙 살비올리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측과도 접촉해 5·18진상규명을 위한 UN과의 공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UN관계자들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재단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했다"며 "국내 국가폭력기념단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각장애인 수상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강사들이 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금호타이어 복지관 수영장에서 세광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국회 앞 5·18 천막 농성장서 심야 테러 60대, 불 지르고 집기 부수며 난동

5·18 진상규명과 왜곡 처벌을 촉구하는 국회 앞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심야 시간 테러를 당했다.

1일 5·18국회농성단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경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5·18천막 농성장에 접근, 라이터로 천막에 불을 붙이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현준 5·18농성단 상황실장이 혼자 머물고 있었다.

김 상황실장은 즉시 해당 남성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남성은 여의도지구대에서 연행해 현재 조사중으로, 범행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농성단은 지난 3월 9일에도 새마을모자를 쓴 남성 2명이 5·18천막 안으로 난입한 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건도 극우단체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5·18농성단 관계자는 "농성단을 향한 과격한 범행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 행위를 방관,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번 테러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자유한국당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 5·18기념재단 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등을 지내는 등 5·18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진태 집행위원장은 5·18재단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5·18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등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점이 높은 평가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행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자체 수도권 운영 장학숙 입사 조건 불합리 학생 차별"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장학숙'의 입사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장학숙' 입사 조건이 불합리해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모임이 모집 요강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원학사, 충북학사 서서관 등은 입사생 선발기준에 성적을 70~75% 반영했다. 경북 고령·구미·영천, 전남 나주 등의 장학숙은 4년제 대학 진학자에게만 입사 자격을 부여했고, 1억원 이상 기부자를 입사자로 추천하는 특별 선발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이와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생활 정도로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장애, 유공자 등에 가산점 제도를 뒀고, 인천 강화군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직접 공개추첨 하고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아직도 성적, 출신 학교 등을 반영하는 곳이 많아 학생에게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업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려는 기속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뜨기 10:04
해질 18:16 달지기 20:54

태풍대비 철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불겠다.

광주	비	21/24	보성	비	19/22
목포	비	21/24	순천	비	21/24
여수	비	21/23	영광	비	20/24
나주	비	21/24	진도	비	20/23
완도	비	21/23	전주	비	20/23
구례	비	20/24	군산	비	21/23
강진	비	21/23	남원	비	20/23
해남	비	20/23	흑산도	비	19/23
장성	비	20/24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2.0~5.0
남부 앞바다	북동~동	3.0~5.0	동~남동	3.0~7.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5~3.0	동~남동	2.0~5.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3.0~5.0	동~남동	4.0~8.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3.0~6.0	남동~남	6.0~9.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1	04:27
여수	간조	만조
	21:57	16:59
목포	간조	만조
	04:53	11:27
여수	간조	만조
	17:25	23:33

◇주간 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	☁	☁	☁	☁	☁	☁
22/24	18/26	16/24	15/23	14/22	14/23	14/23

전남, 건물 내진설계 확보율 전국 최하위

전국에서 전남의 건물 내진 설계 확보율이 가장 낮고,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광주·전남의 지방세 감면 지원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10건(광주 3·전남 7)이 발생했다. 건물 내진확보 비율은 전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울산(18.5%)·서울(17.4%)·세종(16.6%)·대전(16.4%)·인천(16.3%)·광주(14.7%)·제주(14.6%)·대구(12.7%)·부산(10.1%)·충북(10%)·충남(9.9%)·경남(9.4%)·전북(9.1%)·강원(8.2%)·경북(7.8%)·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대상건물 12만 9765동 중 1만 9038동만 내진확보가 이뤄졌고, 전남은 16만 1872동 중 3만 882동만 내진확보가 이뤄졌다.

전남대 광전자박막연구실 '우수 연구실' 선정

전남대 광전자박막연구실이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

전남대 광전자박막연구실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에너지 혁신인재포럼'에서 에너지인력양성 혁신포럼 '우수 연구실'로 선정됐다.

화학, 화학공학, 두산중공업 등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580여개 기업이 참여해 매년 1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실 가운데 에너지 분야 취업 및 연구 성과, 기업으로 해결에 적극 기여한 연구실을 선정해 표창하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분야 석·박사 양성 사업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계와 대학원생 등 전국 60여개 대학과 LG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전국 판매점 및 가맹점 모집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 절삭유 교체 ✘ 미세 칩 제거
-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약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